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4. 18	04. 25	05. 02
대 표 기 도	김효중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효중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성경 읽기-성령강림절(5월23일)까지 **대선지서(이사야~다니엘)**를 통독합니다.
2. 줌 예배 안내-수요예배(19시), 금요예배(시편 묵상, 20시)
3.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한국 제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부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02장 다같이
 기 도 Gebet 황희순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사 12 : 1 - 6(구p983) 황희순 집사
 설 교 Predigt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304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효종 집사

고난의 산을 넘어

학창시절 교회에 나가 성경공부를 했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출신의 젊은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여 교회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된 어느 날, 유방암이 발견되어 수술실에 실려 갈 때 자존심 상해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회복된 후 참석한 예배시간에 목사님은 하필 돌아온 탕자를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방황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와 연구로 바빠지자 하나님은 내게 다시 관념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왼쪽 가슴에 유방암이 발견되었고 수술 후 또 다시 학문 연구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강하던 남편이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병원으로 찾아오신 목사님이 야고보서 5:15을 읽고 함께 기도하자고 사셨습니다. 그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소망이 있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사야 53:5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0세가 넘는 나이에 고난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들러 남편의 귓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학교에 갈 때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학생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자살하려던 학생, 위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찾아왔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고난의 산을 넘고 계시다는 믿음이 커졌고, 나의 문제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 / 이화숙 외

*** 시련의 때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리라.**

- Amy Carmichael(알랜드 출신 여성 선교사) -